섹시한 '터거' 춤에 암고양이들 '야옹'

■ 캐릭터로 만나는 뮤지컬 '캣츠'

드미터와 봄발루리나

'다양한 고양이 캐릭터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는 21~26일까지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뮤지컬 '캣츠'는 고양이들의 젤리클 축제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29마리에 달하는 고양이들은 제각각 독특한 캐릭터로 관객들을 유혹한다.

'메모리'를 부르는 그리자벨라나 바람둥이 고양이 럼텀터거 등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캐릭터는 물론이고, 항상 똑같이 행동하는 쌍둥이 고양이 등 재미있는 캐릭터가 많다. 각 고양이들의 특성을 알고 보면 뮤지컬 보는 재미가 훨씬 크다.

거스와 그리들본

▲극장 고양이 거스

젊은 시절 환호를 한몸에 받았던 유명 배우였던 고양이다. 회환이 묻어 있는 노래 '거스'를 부를 때와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루울타이거의 마지막 접전'을 부를 때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특히 암고양이 그리들본과 함께 듀엣을 부르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보통 거스 뿐 아니라 부자 뚱보 고양이 캐릭터 버스토퍼존스 역까지 함께 맡는다. 광주 공연에는 오페라 가수로 '토스카' 등에 출연한 강연종씨가 출연한다.

극장 고양이 거스, 사회자 멍커스트랩…
29마리 고양이들의 갖가지 특성
알고 보면 재미도 2배
21~26일 광주 문예회관 공연

▲사회자 고양이 멍커스트랩

젤리클의 리더인 그는 '새끼 고양이의 보호자'다. 중저음의 안정적인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극의 중심을 잡아준다.

무대가 열리며 첫 솔로로 부르는 '젤리클 축제에 대한 소개'는 작품에 안정감을 준다. 고양이들의 가장 큰 어른인 올드 듀터토미를 소개하는 노래를 럼 텀 터거와 함께 부를 때는 감미로운 목소리가 일품이다.

▲드미터와 봄발루리나

붉은 털을 갖고 있는 봄발루리나는 섹시하고 관능적인 고양이다. 예민한 고양이 드미터를 지켜주는 존재로 항상 그녀와 함께 움직이는 게 특징이다.

'매혹적인 고양이 그리자벨라'를 부를 때, 특히 드미터와 함께 '맥커비티'를 함께 부르는 장면에서 두 고양이는 웨이브가 가미된 육감적인 몸놀림과 함께 멋진 이중창을 선보인다.

▲바람둥이 고양이 럼 텀 터거

'캣츠'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캐릭터다. 1부 중간 쯤 그가 등장해 '럼 텀 터거'를 부르며 허리 골반을 튕길 때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진다. 극 중간 중간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들을 만지는 '과감한' 동작을 할 때면 여자 팬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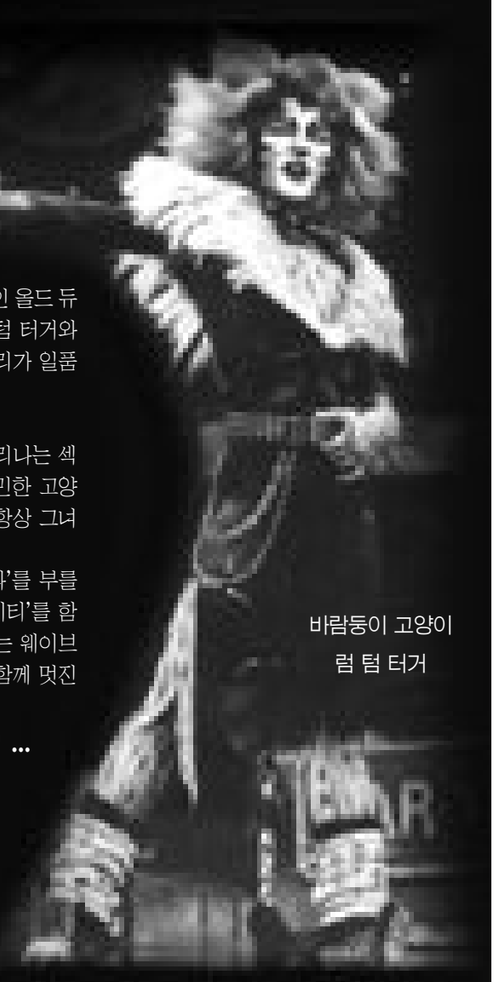
그를 쫓아다니며 동작 하나 하나에 반응하는 암컷 고양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롭다.

▲귀여운 고양이 실라밥

춤을 잘 추는 흰 고양이 빅토리아의 절친한 친구로 호기심 많은 아기 고양이다. '캣츠'의 대표곡인 '메모리'를 그리자벨라와 함께 부른다. 파워풀한 그리자벨라의 목소리와 달리 아기처럼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부르는 '메모리'는 감성을 자극한다. 2부가 시작 된 후 올드 듀터모니와 함께 '행복의 순간들'도 함께 부른다.

티켓 가격 VIP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문의 1588-0766. 062-220-05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람둥이 고양이 럼 텀 터거

사회자 멍커스트랩

서울 아트페어·아트살롱 지역 작가들 출품 잇따라

지역 작가들이 국내 미술시장의 다양한 흐름을 조망하는 아트페어에 잇따라 작품을 내놓는다.

15~19일까지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리는 '서울오픈아트페어(SOAF)'에 김숙빈, 김진화, 박수만, 박태후, 신양호, 안유자, 오혜경, 이매리, 이이남, 주대희, 최재영, 한희원씨 등이 참여한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80개의 화랑이 참여해 1천200여명의 회화, 조각, 사진 등 작품 5천500여점을 소개한다. 가격부담을 낮춘 '200만원 특가전'과 공모를 통해 발굴한 30대 이하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머징 아티스트 콘테스트'전 등이 함께 열린다.

오는 16~20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서울아트살롱'에 고근호, 김강석, 김서진, 김용안, 김혜린, 김혁, 박혜정, 서유미, 배현철, 엄기준, 오창록, 이조흠, 조승기, 최미연씨 등이 참여한다.

최재영 작 'RUN'

톡톡 튀는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위주로 열리는 신생 그림 장터인 이번 아트페어는 회화, 사진, 조각 등 총 2천여점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에게 100억 돈가방이 생긴다면?

'라이어 3탄, 튀어' 광주 공연

15~19일 5·18기념문화센터

'코믹 연극의 대명사'로 불리는 '라이어 3탄, 튀어'가 광주 공연을 갖는다. 15~19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돈 때문에 벌어지는 하룻밤의 해프닝을 다룬 '튀어'는 두 집 살림을 하는 남자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린 '라이어 1'의 작가 레이 쿠니의 작품이다.

농협 말단 직원인 영호는 자신의 생일날 합승한 택시 안에서 100억 4천만원과 다이아몬드가 든 돈가방을 바꿔 들고 내린다.

영호는 아내 은영과 함께 서둘러 외국으로 도망칠 궁리를 하지만 우연찮게 경찰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영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돈 가방을 사수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며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든다.

현재도 서울 대학로에서 롱런하고 있는 '라이어' 시리즈의 명성 답게 탄탄한 대본과 스피디한 전개, 계속되는 반전, 배우들의 능청스런 연기가 어우러져 웃음 폭탄을 터트리게 한다.

R석 3만5천원, S석 2만5천원.

문의 1688-38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섬문화관광 해설사 수강생 모집

대동문화재단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이 제6기 남도섬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20일부터 7월까지 20주간 광주전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론 강좌와 진도, 보길도 등 남도의 섬과 전라도 곳곳에 산재한 문화관광자원을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참가 희망자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지원서를 작성 15일까지 재단 학예실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20만원 문의 062-674-6567, 062-461-15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